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8책

사천 송지리 옛 무덤떼



199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8책

사천 송지리 옛 무덤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천송지리 도곽 무덤 발굴조사 보고서

정영호·북기대

이 보고서는 조사를 끝마친 뒤 32년이 지난 다음에 펴내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32년 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김상조 통영군수와 사천 군 공보실장 김영태님의 도움을 받아 정영호 관장의 지휘아래 31명의 학부학생, 이호영 대학원생, 신영훈 건축사학자의 도움으로 실측하여 조사하였던 결과가 엮여지지 못하고 잠들게 되었다.

이제 세기를 달리하는 마당에 완전하지 않은 기록들을 가지고 거친 모습의 보고서를 내게 되어 죄송하다. 몇 해 전부터 한창균 교수의 노력으로 밀린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으나 끝맺지 못한 것도 아쉽다.

북기대 박사(학예연구원)는 정영호선생의 문하이며 고고학 전공으로 이 보고서를 맡아서 펴내도록 수고하여 주었고 이지영님은 그림을 그려주어 두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조사 사업에 수고하셨던 여러분의 보람이 길이 남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9. 1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글 차 례

1. 조사 경위와 조사단 구성	7
2. 지세와 환경	7
3. 무덤떼와 출토유물	7
가. 무덤떼	7
나. 나온유물	8
가). 토 기	8
나). 철제유물	12
다). 구 슬	14
라). 숫 돌	14
4. 맺 음 말	14

그림 차례

그림1 송지리 유적과 언저리	16
그림2 단지	17
그림3 굽단지	17
그림4 굽단지	18
그림5 굽단지	18
그림6 긴목단지	19
그림7 긴목단지	19
그림8 긴목단지	20
그림9-1 뿔손잡이잔(뚜껑 닫은 모습)	20
그림9-2 뿔손잡이잔(뚜껑 연 모습)	21
그림10 잔	21
그림11 귀손잡이잔	22
그림12 귀손잡이잔	22
그림13 질그릇 조각	23
그림14 질그릇 조각	23
그림15 가락바퀴	24
그림16 가락바퀴	24
그림17 솟돌	24

사 진 차 례

사진1 바다에서 바라본 송지리 유적 원경	25
사진2 송지리 돌칸무덤떼 유적지	25
사진3 칸 나누기 및 구덩이의 곁흙 걷어내기	26
사진4 각 구덩이의 무덤 드러난 모습	26
사진5 발굴 완료 뒤 구덩 모습	27
사진6 1호 무덤	27
사진7 2호 무덤	28
사진8 3호 무덤	28
사진9 4호 무덤	29
사진10 5호 무덤	29
사진11 6호 무덤	30
사진12 7호 무덤	30
사진13 8호 무덤	31
사진14 9호 무덤	31
사진15 10호 무덤	32
사진16 11호 무덤	32
사진17 12호 무덤	33
사진18 13호 무덤	33
사진19 발굴단 출발전 모습	34
사진20 발굴 끝낸 뒤 학생들의 견학 모습	34
사진21 단지	35
사진22 굽단지	35
사진23 굽단지	36

사진24 굽단지	36
사진25 긴목단지	37
사진26 긴목단지	37
사진27 긴목단지	38
사진28-1 뿔손잡이잔(뚜껑 닫은 모습)	38
사진28-2 뿔손잡이잔(뚜껑 연 모습)	39
사진29 잔	39
사진30 귀손잡이잔	40
사진31 귀손잡이잔	40
사진32 질그릇 조각	41
사진33 질그릇 조각	41
사진34 가락바퀴	42
사진35 가락바퀴	42
사진36 솟돌	43

泗川 松旨里 石箱式古墳群 發掘調査概要

鄭 永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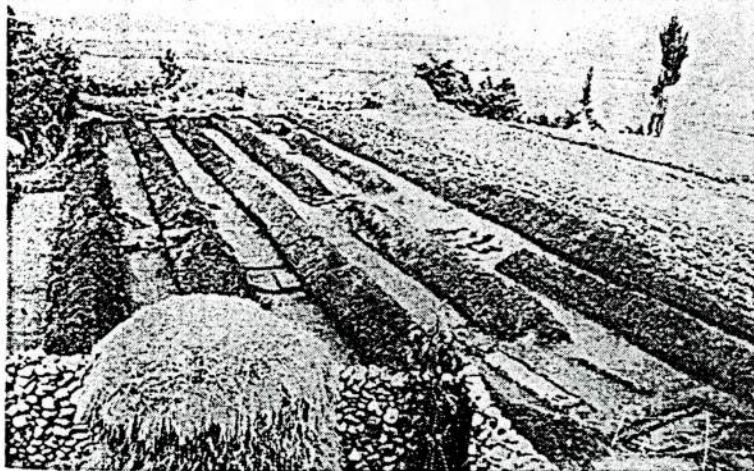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尙南道 泗川郡一帶 先史時代의 遺物調査計劃에 따르는 第二次調査로 지난 七月二十四일부터 八月三日까지 泗川郡 龍見面 松旨里 三三五番地 耕作地에 位置하는 石箱式古墳十三基를 發掘調査하였다.

現在 泗川郡에 遺存하는 石箱墳群은 同面과 正東面 等地에 數處 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今般 松旨里의 石箱墳을 發掘調査케 된 것은 지난 六月初 統營郡守 金相朝氏와 泗川郡公報室長 金榮泰 兩氏의 紹介로 現地를 踏査한 바 이곳 松旨里 部落에 石箱墳의 板石이 家戶마다 散亂하고 특히 洪性鐵氏(三六歲)가 所有한 上記 耕作地에 石材가 出土되며 土器破片이 無數히 發見된다 하여 當時 筆者도 이 光景을 目擊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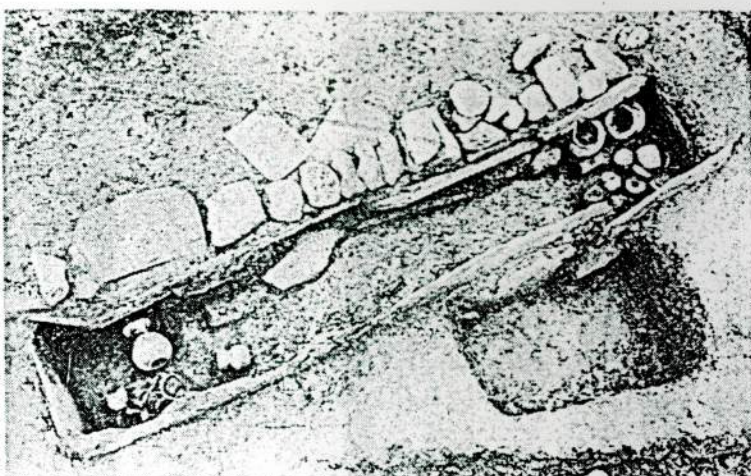
으며 貴重한 先史遺蹟을 收拾코자 破壞墳의 整理와 諸遺物의 發掘을着手하게 된 것이다.

이번 發掘調査에는 筆者가 主管하여 史學科生 男女三十一名이 參加하였으며 記錄에는 大學院史學科生 李昊榮君이 手苦하였고 同人 申榮勲氏가 實測을 擔當하고 發掘進行과 遺物收拾까지도 助言을 주어서 計劃대로 圓滿한 作業이 遂行되었다. 今般 施行된 發掘調査의 詳細한 內容은 앞으로 發刊될 報告書에 發表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發掘의 進行과 出土된 石箱墳의 構造 및 諸遺物의 內容을 略報코자 한다.

泗川邑內로 부터 三千浦行 車道로 約十km 龍見面所在地에서 下車하여 西等海岸으로 一・五km를 步行하면 松旨部落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 西南쪽으로 바다 건너 바라보면 昨年度에 發掘調査한 西浦面 舊平里 貝塚地域이 보이며 (直線距離 約十km라 함) 西쪽으로 是長大한 堤防이 築造되었는데 筆者가 郡當局에 問證調査한 바에 依하면 이 防築은 日帝末년에 完



發掘 現場 光景



第1號墳遺構

기로 한)에 限定하고 東쪽에서 西方向으로 長五〇m 幅一・五m 길이五〇cm의 「트렌치」를 北쪽으로 부터 二・五m 간격을 두고 N₁ N₂……順으로 N₆까지 掘어서 石箱墳의 露出을 試圖했는데 發見된 順序대로 第一號墳 第二號墳의 名稱을 붙혀 全 第十三號까지에 이르렀다.

大概是 現地表約三〇—四〇cm 地下에서 發見되었는데 蓋石들은 거의 破失되고 間或 그 殘片이 出土되는 것도 몇 개 있었다. 構造는 第一號부터 第十二號까지가 同一하게 積반岩 板石을 組立하여 石棺을 築은다

成된 것이라 하는바 이 築防으로 말미암아 泗川縣에 數十萬坪의 干拓地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한다. 上記한 石箱墳群이 位置하고 있는 耕作地가 바로 洪氏家의 北쪽 언덕이며 干拓地邊에서 干拓作業時 이곳에서 많은 土量을 運搬하여 海邊埋込에 使用하였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現在 이 耕作地는 三〇—四〇cm 깊이로 耕作하면 無數한 板石과 土器가 破損出土되고 있다. 發掘地域을 耕作地의 事情에 따라 一九八坪(공밭만하

第十三號墳만은 川石으로 石槨을 만들고 있는데 十三基中 完形으로 發掘되고 遺物도 收拾된 것은 第一號、第二、三、四、六、七、十三號墳이며 以外는 全破 或은 半破되어 遺物도 또한 그리하였다. 形態는 勿論 長方形인데 最大의 것은 第一號墳으로 長三・五m 幅七〇cm이며 以外는 長二・九m 內外로 거의 같은 크기다.

分布는 東西 或은 南北方向으로 安置되어 있는데 今次 發掘한 地域에서 東・北쪽으로 더욱 擴大하면 많은 遺構가 發見될 것으로 推定된다. 出土物은 石器는 全無하며 鐵器와 土器 및 裝身具 等이다. 鐵器로는 長劍과 短劍 外 鎧子와 小鐵이 多數였으며 土器는 把手 및 附蓋의 赤色 土器와 灰土로는 大口의 壺 및 낮은 甬가 있는 無頸甕가 數點 出土되어 注目을 끌었다. 高坏形은 全無하고 底面이 共히 圓形이다. 裝飾具로는 管玉의 목걸이와 細環耳飾이 出土되었는데 한쌍만이 原位位置에서 移動된 것으로 收拾되고 그 外 三點은 表土의 교란으로 因하여 原位位置에서 移動된 것 같으며 그래서 한쪽씩만이 殘存한 것 같다. 이 耳飾의 鍍金은 찬란한 데 細環뽀으로 거기에 附着된 다른 裝飾은 一切 없는 素朴한 裝身具라 하겠다. 이 耳飾과 목걸이의 出土로 보아 當時 屍體의 埋藏方向을 알 수 있는 바 東西向의 石箱墳은 東쪽으로 머리를 두었으며 南北向의 石箱墳은 南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이번에 發掘된 土器들은 그 質로나 形態로 보아 伽耶系統의 土器와도 같다고 보겠으나 多少 그 形態上에 있어서 異形을 이루는 問題點도 있어서 이들 遺物의 整理와 再檢討에서 諸問題點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發掘調査에서 手續時부터 發掘終了時까지 많은 後援을 주신 金相朝 郡守와 泗川郡의 高昌燮 郡守 金榮泰 公報室長 그리고 現地가 지來訪하여 遺物整理와 包裝에까지 協助해주신 梨花女大 博物館長 秦弘燮 教授 및 金和英氏 一行과 李宗碩氏 氏 같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며 特히 發掘着手時 現地를 中心한 周圍 諸地域의 地質과 岩石을 調査해 준 首都女子師範大學 地歷科의 鄭璋鎬 教授께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① 昨年(一九六七年)부터 始作하여 三年을 計劃하고 있는 바 今年은 二年度가 된다.

② 豫備調査次 近者와 같이 現地를 踏査하였다.

③ 拙稿「泗川 舊坪里 貝家發掘調査概要」(本誌 第八卷 第八號 通卷 第八五)

1. 조사 경위와 조사단 구성

조사 경위와 조사단 구성에 관한 것은 1968년 9월 <고고미술> 제9권 9호에 실린 정영호교수의 발굴개요로 가름한다.

2. 지세와 환경

발굴된 송지리 무덤유적은 경상남도 사천군 용현면 송지리에 자리하고 있다. 인문지리상 위치는 경남 진주에서 삼천포 방향으로 약 40km쯤 거리에 자리하고, 유적에서 삼천포까지는 8km쯤 된다. 서쪽으로는 사천군 깊숙이 까지 들어온 진주만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 환경은 해마다 약 1400-150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연 평균 기온은 14도 쯤의 포근한 해양성기후이다. 해발높이는 100m이내의 들판으로서 김해평야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세 환경은 송지리 유적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태계가 사람들의 삶에 알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무덤떼와 출토유물

가. 무덤떼

송지리유적에서 발굴된 무덤은 모두 13기이다. 무덤은 곁흙에서 밑으로 30~40cm 깊이에서 찾아졌다. 무덤의 짜임새는 1~12호 무덤은 염판암 돌로 돌칸을 짜았고, 13호무덤만은 넷돌로 돌칸을 만들었다. 무덤중 1호무덤의 크기가 가장 큰데, 길이가 3.5m 너비 0.7m이고 나머지 무덤은 길이가 2.9m안팎으로

거의가 같은 크기였다. 7,8,9,10호 무덤의 바닥은 판판한 조각 돌을 깔았고 나머지는 흙바닥이었다. 무덤 안의 구조는 13기중 네 무덤만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무덤안 양쪽을 계단식으로 만든 무덤: 3호

나). 한쪽면이 높고 한쪽면이 낮은 무덤: 6호

다). 무덤의 한쪽 끝에 별실을 둔 무덤: 7호

라). 냇돌을 깔은 무덤: 13호

마). 나머지는 모두 바닥이 판판하다.: 1,2,4,5,8,9,10,11,12

무덤떼의 특징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나 순서가 없고, 서로 위아래로 겹치는 무덤도 없었다.

그러나 짜임새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나. 나온유물

찾아진 유물들은 거의가 무덤의 껍질거리였다. 이들을 재질로 분류해봤을 때 도기, 철제, 돌, 옥 그리고 금동제 구리제품들이었다. 재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토기

단지.

단지는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항아리식 : 짧은 목, 볼록한 배, 평평한 바닥을 지니고 있다.

1) 전체높이 16.5cm, 아가리지름 12cm

목부분은 곧은 짧은 목이며, 완만하게 바라지는 입술이다. 입술 뒷면에는 한 줄의 띠무늬가 돌새김되어있고, 배 부분 중간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빗금무늬가 새겨져있다. 밑바닥이 평평하지 않게 구어 쳐서 곧바로 서지를 못한다. 빛깔은 회청색. (3호무덤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58, 그림 2, 사진 21)

굽단지 식

원통 굽다리와 불룩한 배를 특징으로 한다.

- 1) 전체높이 20.5cm 굽높이 6.5cm 아가리지름 9cm 굽지름 14.8 두께0.5cm
짧은 목과 평평한 입술을 가지고있다. 배부분에 일정 길이의 네 곧은 무늬가 새겨져있다. 굽 부분에는 일정한 세꼴간격을 이루며 세로로긴의 세개의 투창이 뚫려있음. 네 줄의 뚫린창이 만들어져 있다. 돌은 띠무늬가 돌새김되어 있다. 빛깔은 회청색이다.
(7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30, 그림 3, 사진 22)
- 2) 전체높이 24.5cm, 굽높이 7cm, 아가리지름 9cm, 굽지름 15cm, 두께 0.5cm. 짧으며, 목이 비스듬이 바라지는 입술에, 배 중간부분까지 1cm쯤 사이를 두고 1cm쯤 세로무늬가 새겨져있다. 아래 배 부분에는 물결무늬가 새겨져있다. 굽다리 부분에는 네 면에 일정한 사이를 두고 세로길이의 뚫림새 넷을 만들었다. 굽 부분에는 굵은 띠무늬와 얇은 띠무늬가 한 줄씩 돌새겨져있다. 배 한쪽면에 자연유가 흘러나와있다. 빛깔은 회청색.(1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29, 그림 4, 사진 23)
- 3) 전체높이 17cm, 굽높이 7cm, 아가리지름 9cm, 굽지름 14.5cm, 두께 0.5cm 짧은 목 평평한 입술이다. 윗배 부분부터 중간까지는 1cm쯤 사이를 두고 1cm쯤 세로무늬가 새겨져있다. 아랫배 부분에는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굽다리 부분에는 네 방향으로 세로길이 뚫린창 네 개가 뚫렸음. 배부분과 굽다리 이음 부분에 두줄의 띠무늬가 약하게 돌새김되었고, 바로 밑에 어있 띠무늬가 약하게 돌새김 되어있다. 굽 다리 부분에는 한 줄의 띠무늬가 뚜렷하게 돌새김 되어있다. 전체로 균형이 잡혀지지 않았다. 빛깔은 붉은 색을 띄고 있다.
(4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28 그림 5, 사진 24)

긴목단지

긴목과 불룩한 배를 가진다.

1) 전체높이 17cm, 목길이 6cm, 아가리지름 14cm, 두께 0.6cm

아가리 지름이 배 지름보다 크며, 바라지는 평평한 입술이다. 윗목에 파도무늬가 새겨져있다. 중간 부분에는 두줄의 물결무늬가 새겨져있다. 목의 제일 아래 부분에는 두줄의 띠무늬가 뚜렷하게 돋새김되어 있다. 아래 배 부분에는 가로무늬와 빗금 무늬가 엉클어져 새겨져있다.

밑바닥이 둥글어 곧게 서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빛깔은 청회색(3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39, 그림 6 사진 25)

2) 전체높이 15cm 목높이 6cm 아가리지름 14cm

아가리지름이 배지름보다 크며, 입술이 평평하게 밖으로 뺀어있다. 목 부분 위쪽에 세 줄의 띠무늬가 얇게 돋새겨져 있으며, 목 중간 부분에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아래 부분에는 두줄의 띠무늬가 돋새김되어 있다. 아랫배 부분에는 빗금무늬가 새겨져 있다. 밑바닥이 둥글어 곧게 서지를 못하는 모습이다. 빛깔은 청회색이다. (2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45 그림7 사진26)

3) 전체높이 18cm, 목높이 5.5cm, 아가리지름 14cm, 입술너비 3.5cm.

아가리지름이 배지름보다 크다. 넓은 입술이 비스듬히 위로 뺀어있다. 목과 입술 부분의 이어진 부분에 턱을 둔 형식으로 한 줄기 띠무늬가 돋새겨져 있다. 밑바닥이 둥글어 곧게 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빛깔은 청회색 이다.

(13호 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44, 그림 8, 사진 27)

잔

잔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덧개잔 모습

전체높이 17, 통넓이13.

원통형이다. 뚜껑이 있으며 중간 부분에 뿔형 손잡이가 있다. 무늬는 안팎으로 새겨져 있는데, 밖은 빗금무늬이고 안은 불규칙한 줄무늬가 새겨져 있다. 뚜껑에는 단추 같은 꼭지가 달려있다.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짙은 노란색이다.

(3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46, 그림 9-1,2, 사진 28-1,2)

종지모습

높이 8.5cm 넓이 9.2cm

배부분은 둥글다. 목부분이 살짝 오므라드는 모습이다. 입술은 비스듬이 바라지는 모습이다.(3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51, 그림 10 사진 29)

손잡이잔 모습

1) 전체높이 11cm, 아가리 지름 10.6cm, 목높이 2.5cm

목부분이 밖으로 약간 뻗어 바라지다가 위로 치솟고 있다. 배부분에는 한 줄의 띠무늬와, 귀꼴 손잡이가 달려있다. 밑바닥은 완만한 둥근 형태이다.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빛깔을 띠고 있다. (7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47, 그림 11, 사진 30)

2) 전체높이 10cm, 목높이 2cm, 아가리지름 10cm

목부분이 곧게 뻗어 올라갔고 입술부분에는 약간 밖으로 향하고 있다. 배부분에는 귀꼴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빛깔은 회색이다.

(3호무덤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48, 그림 12, 사진 31)

질그릇조각

1) 큰 질그릇의 목 부분으로 물결무늬가 새겨져있다.

14×15×0.9(5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56, 그림 15, 사진 32)

2) 질그릇의 목부분에 물결무늬가 새겨져있다. 빛깔은 짙은 갈색.

6.8×7.8×0.4(9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57, 그림 16, 사진 33)

가락바퀴

두 점이 출토되었다. 흙으로 만들어 졌으며 중심부에 둥근 구멍이 뚫렸다. 바퀴 부분이 볼록한 원통형이다.

1) 10호무덤 출토, 높이 2.4cm, 넓이 4cm, 구멍지름 0.9cm

(참고번호 단대박 40056, 그림15, 사진34)

2) 9호무덤 출토, 높이2cm, 넓이4cm, 구멍지름1cm

(참고번호 단대박 40057, 그림 16, 사진 35)

나) 철제유물

칼

칼은 두 가지가있다.

(가) 긴칼

1) 칼날길이 58.5cm, 폭 4.3cm

한쪽날. 손잡이 끝이 둥근 고리꼴로 되었음. 손잡이까지의 길이는 약 70cm 정쯤임. 많이 삭아서 자세한 모습을 알 수가 없다.(1호 무덤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02-1)

2) 칼날길이 33cm, 전체길이43cm, 넓이3cm, 칼등두께1cm쯤

날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함께 부워졌다. 심히 삭아서 상세한 모습은 알 수 없다.

(2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02-2)

(나) 짧은 칼

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8cm, 손잡이 5.5cm

한쪽 날. 손잡이 부분은 삭는 물질로 자루를 만들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 언저리에서 찾아졌다.(참고번호 단대박 40005)

(다) 쇠도끼

길이 19.2cm, 넓이 6.1cm

쇠판을 이용하여 만들었음. (3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15)

(라) 허리띠 매듭

길이 05.5cm, 넓이 4cm

허리띠 매듭부분으로 장방형이다.(1호무덤 출토 참고번호40013)

(마) 발거리

한 쌍, 심하게 삭아서 뚜렷한 모습을 알 수 없다.

높이17cm, 직경22cm(1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단대박 40018-1)

높이19cm(추정) (1호무덤 출토, 참고번호 40018-2)

(바) 화살촉

모두 6점이 찾아졌다. 길이 12.5-6cm, 넓이0.6-1.2cm, 촉 부분은 양날이고 세모꼴이다. (참고번호 40008-40012, 40019)

이밖에도 철제 유물이 찾아졌으나 심하게 삭아서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의 것이다.

(사) 금동제 고리

두점

1) 고리지름 3.3cm, 두께 0.31cm, 금동판을 얇게 두드려 안에 다른 물질을 넣고 말아서 만든 것

(참고번호 단대박 40055)

2) 고리지름 1.6cm, 두께 0.31, 만든 방법은 위와 같다.(참고번호 단대박

40054)

다) 구슬

16개

크기는 길이1~0.7cm 지름0.7~0.5cm. 목걸이로 생각된다.(참고번호 단대박 40052, 40053)

라) 솥돌

염판암으로 보인다. 정과 같은 형태로 네면 모두 갈려있다.

19×5.1×4.3. (참고번호 단대박 40058, 그림 16, 사진 36)

4. 맺 음 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송지리 유적은 들판과 바다를 접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대에는 송지리유적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예를 보면 구평리 조개무덤, 선진리 무덤떼, 신복리 무덤떼, 예수리 무덤떼등을 살펴 볼 때 그때 이 지역은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지리 무덤떼나 찾아진 유물들을 살펴 볼 때, 그때 사람들의 생활의 한 면을 엿 볼 수 있다. 찾아진 열세 무덤은 모두 돌칸 무덤이며 큰 차이는 없으나 몇 무덤의 짜임에서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1호 무덤은 크기에서 가장 컸고, 찾아진 유물들 가장 많았으며 가지수 또한 제일 많았다. 긴칼이나 발걸이 등을 볼 때 무덤 주인은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무덤에서는 1호무덤과 같은 유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찾아진 유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기 풀을 볼 때 굽단지, 긴목단지, 귀손잡

이잔등이 많이 보이며, 그릇 밑 부분이 둥근 모습, 새김에서는 띠무늬와 빗금 무늬가 많이 새겨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간단한 특징들을 볼 때 이 유적은 가야문화로 봐야할 것이다.

이 유적이 1968년 발굴되었지만 1999년에 들어 보고서를 쓰게되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고서를 내게되어 실측도나 발굴 당시의 많은 자료를 쓸 수가 없었다. 다행히 발굴 이듬해 정영호교수의 발굴개요가 발표되어, 이번 보고서에 이를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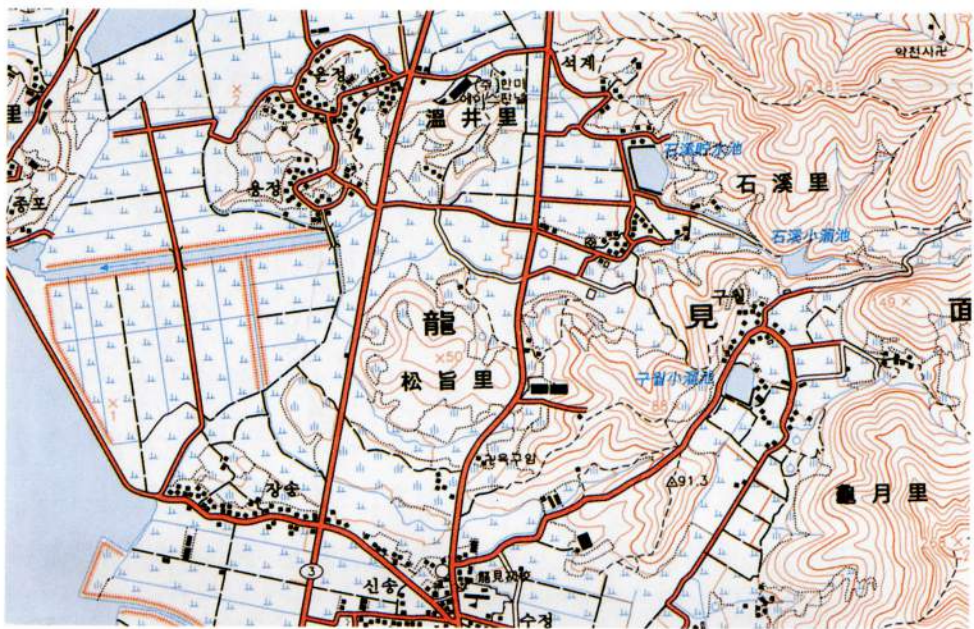


그림1. 송지리 유적과 언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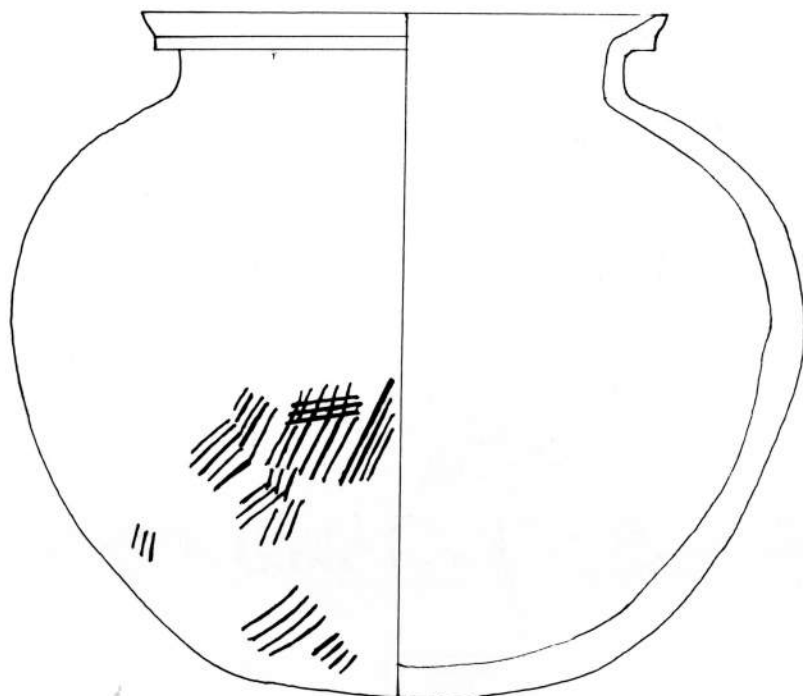


그림2.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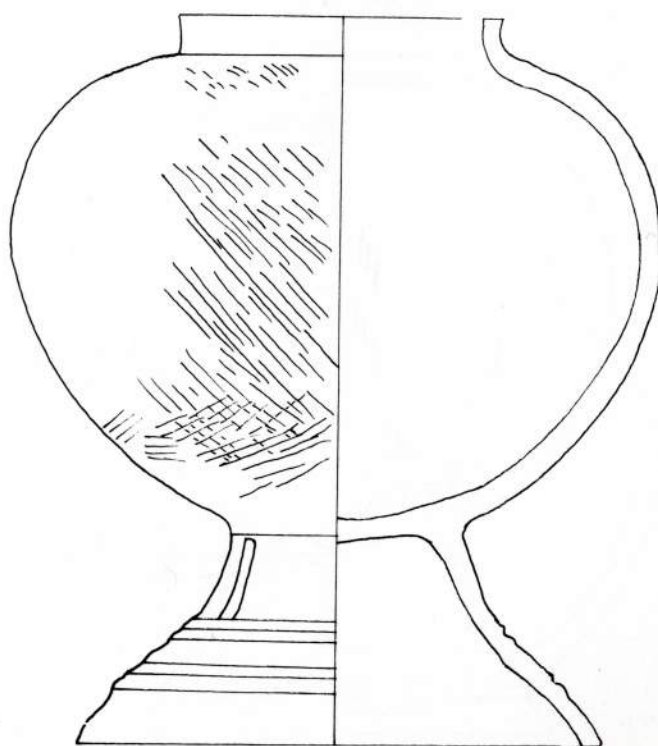


그림3. 굽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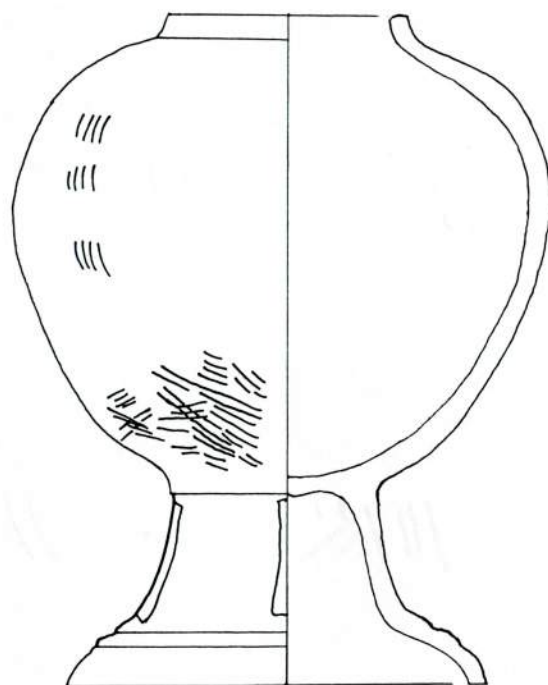


그림4. 굽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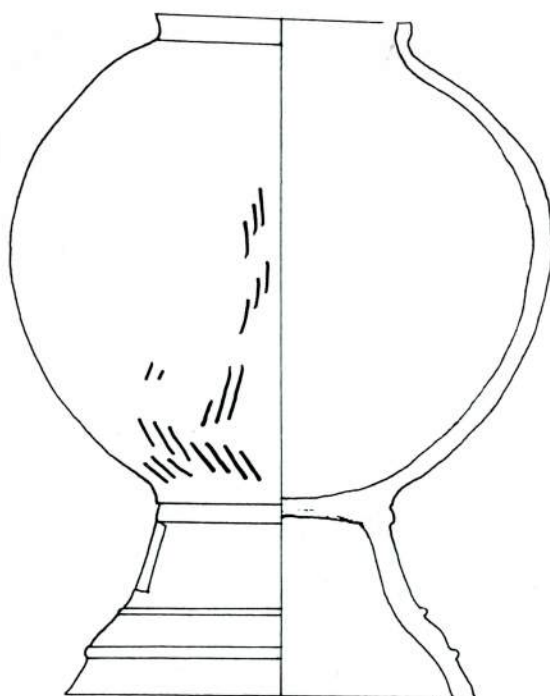


그림5. 굽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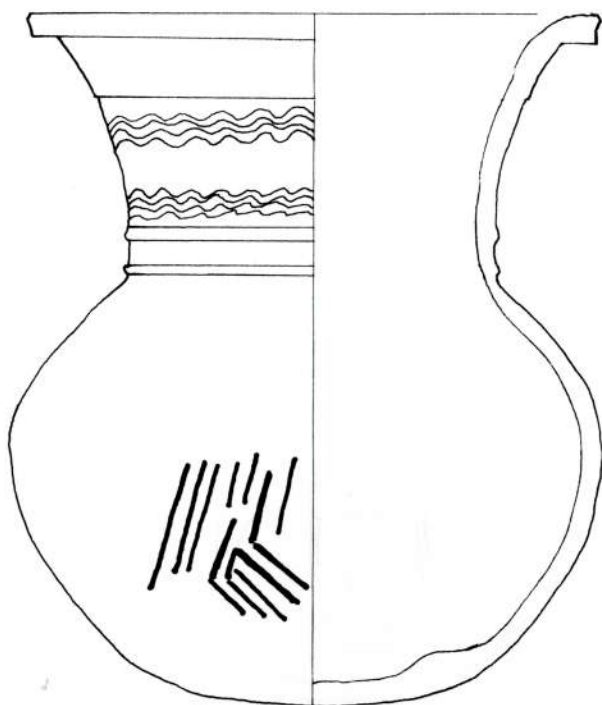


그림6. 긴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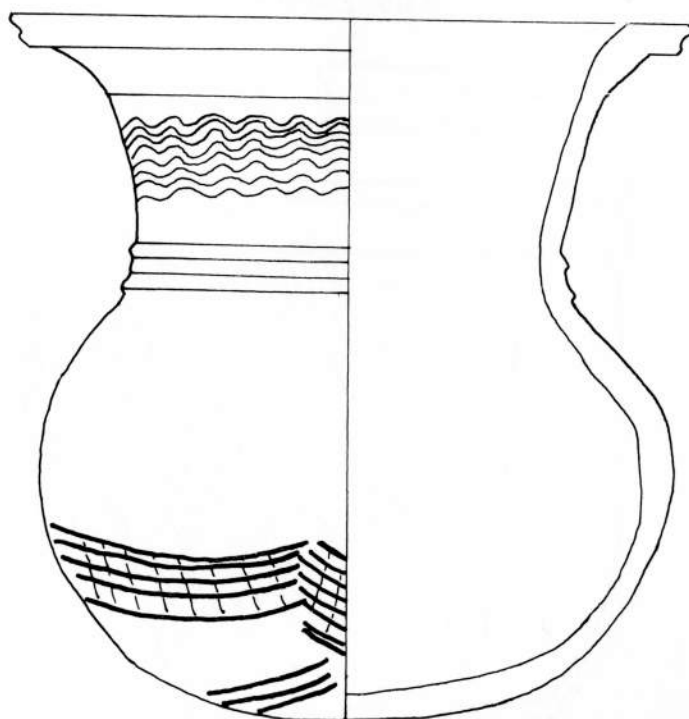


그림7. 긴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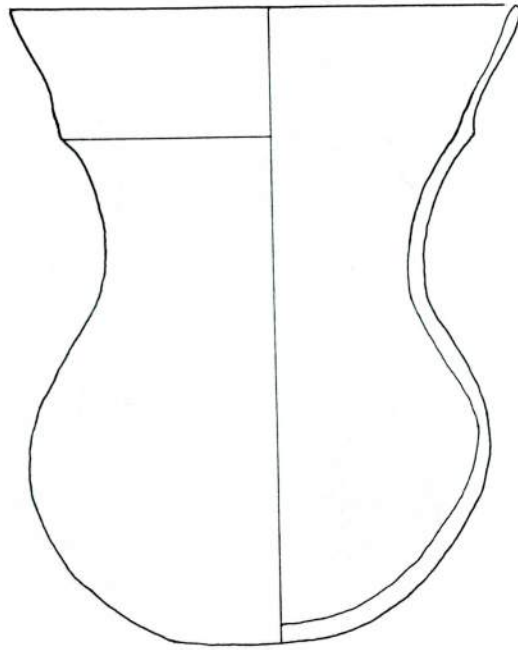


그림8. 긴목단지



그림9-1. 뽕손잡이잔(뚜껑 닫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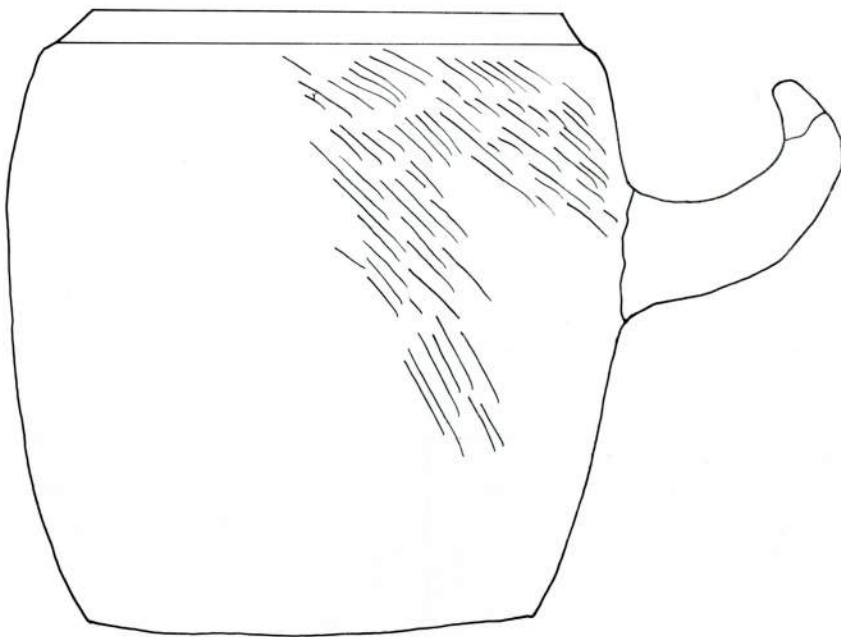


그림9-2. 뿔손잡이잔(뚜껑 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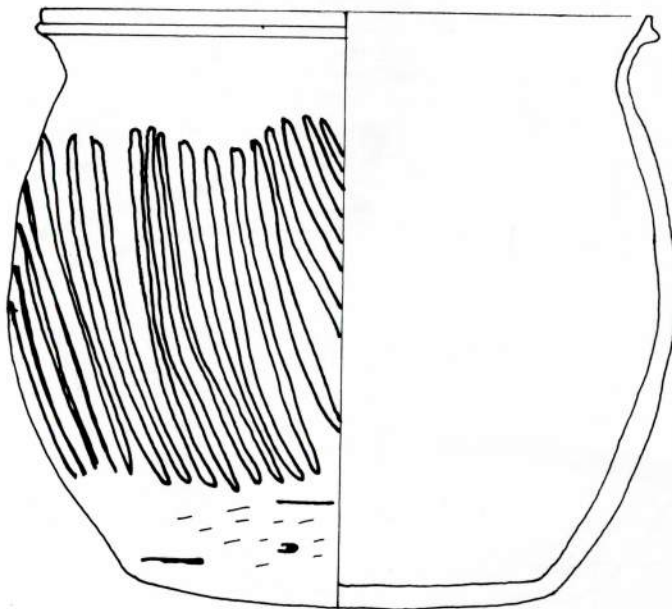


그림10.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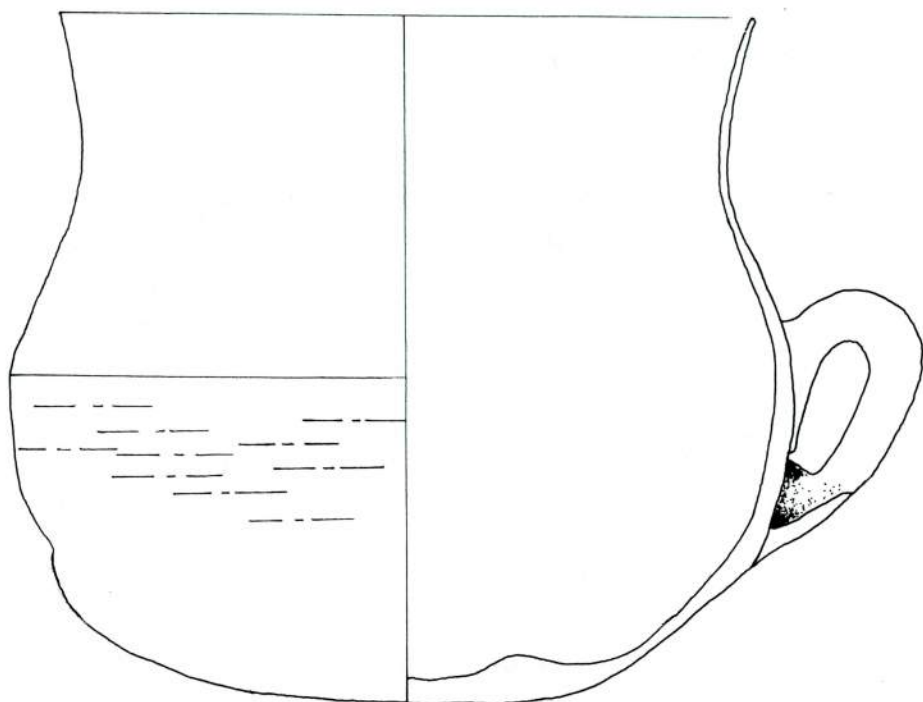


그림11. 귀손잡이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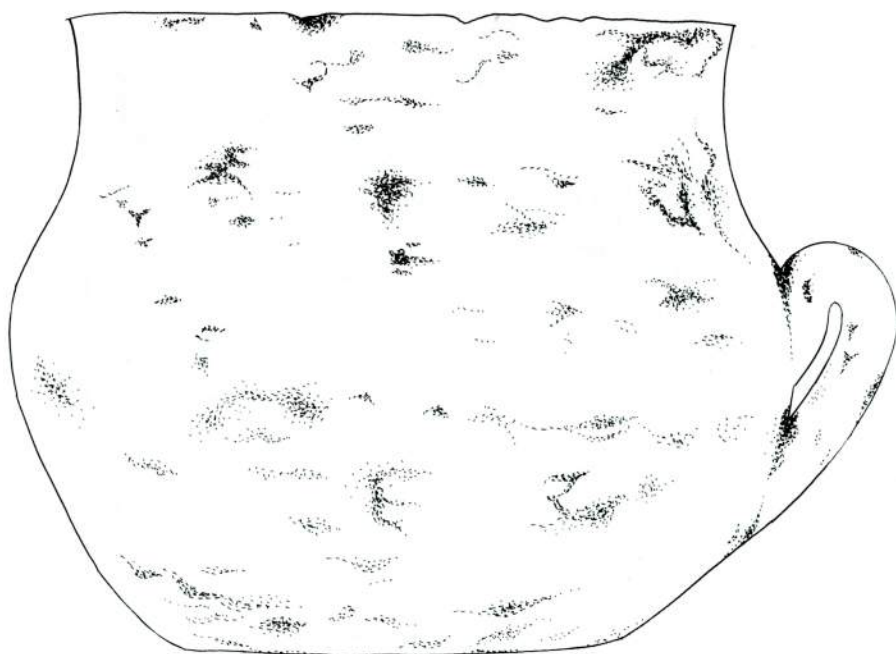


그림12. 귀손잡이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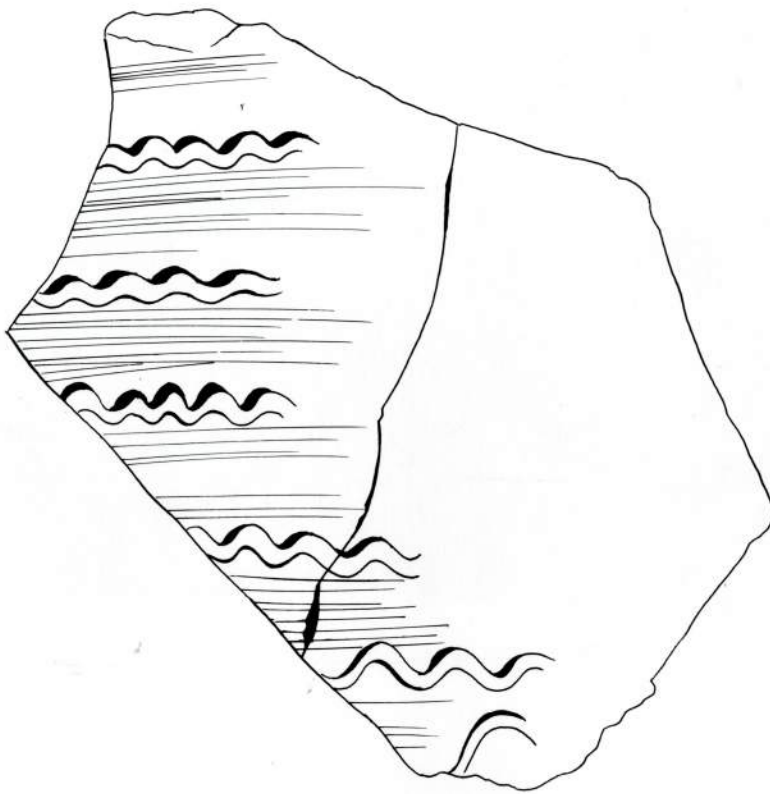


그림 13. 질그릇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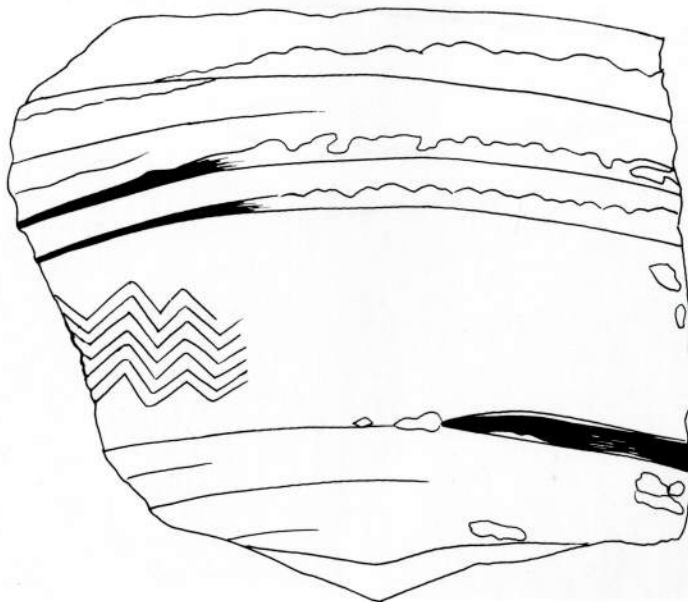


그림 14. 질그릇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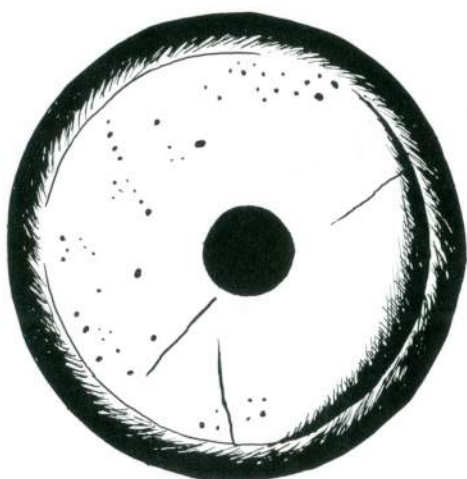


그림 15. 가락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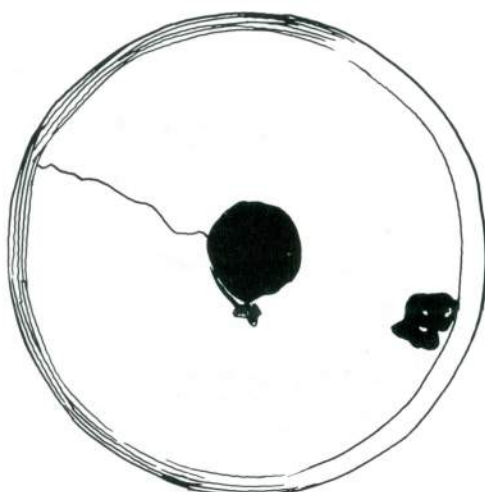


그림 16. 가락바퀴



그림 17. 숫돌



사진1. 바다에서 바라본 송지리 유적 원경



사진2. 송지리 돌칸무덤떼 유적지



사진3. 칸 나누기 및 구덩이의 곁흙 걷어내기



사진4. 각 구덩이의 무덤 드러난 모습



사진5. 밭갈 완료 뒤 구덩 모습



사진6. 1호 무덤



사진7. 2호 무덤



사진8. 3호 무덤



사진9. 4호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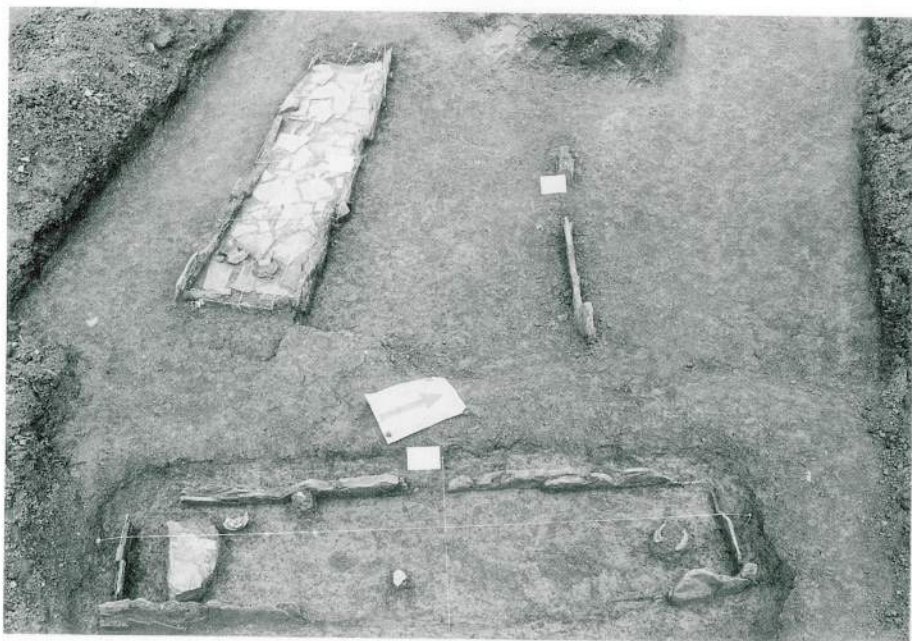


사진10. 5호 무덤



사진11. 6호 무덤



사진12. 7호 무덤



사진 13. 8호 무덤



사진 14. 9호 무덤



사진 15. 10호 무덤



사진 16. 11호 무덤



사진 17. 12호 무덤



사진 18. 13호 무덤



사진 19. 발굴단 출발전 모습



사진 20. 발굴 끝낸 뒤 학생들의 견학 모습

40058



사진21. 단지

4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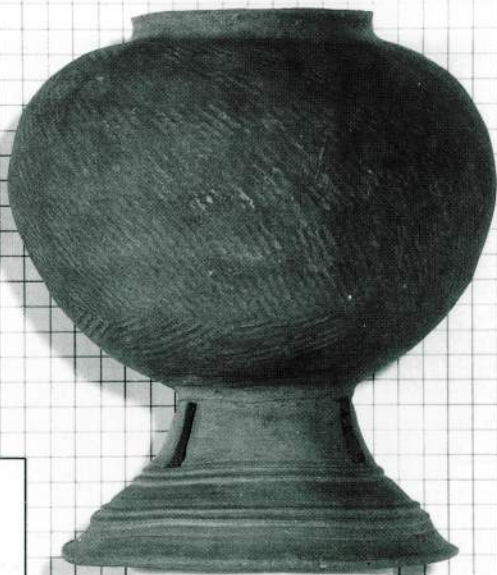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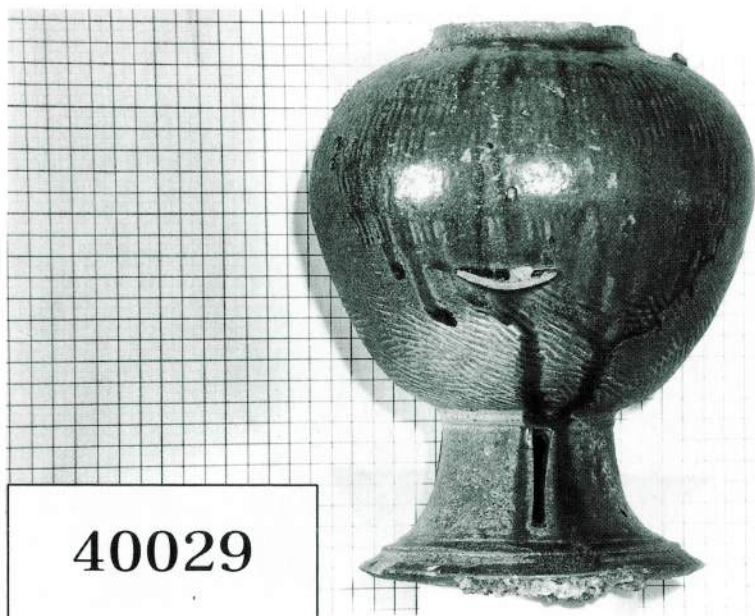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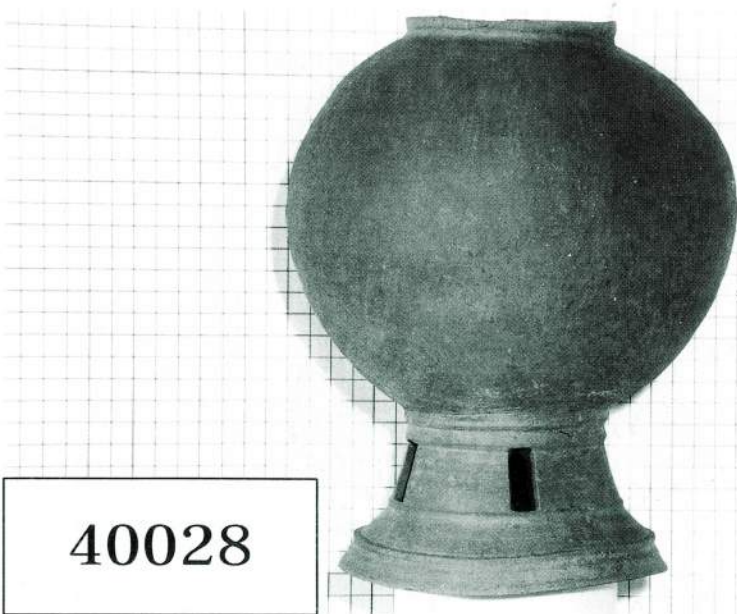


사진22. 굽단지



40029

사진23. 굽단지



40028

사진24. 굽단지

40039



사진25. 긴목단지

40045



사진26. 긴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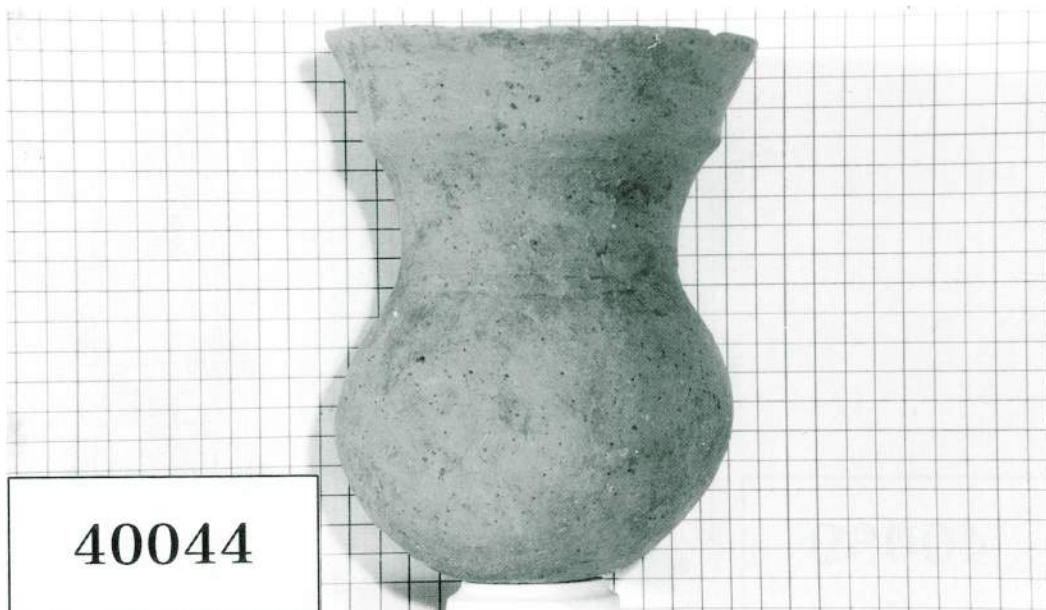


사진27. 긴목단지



사진28-1. 뿔손잡이잔(뚜껑 닫은 모습)

40046



사진28-2. 뿔손잡이잔(뚜껑 연 모습)

40051



사진29.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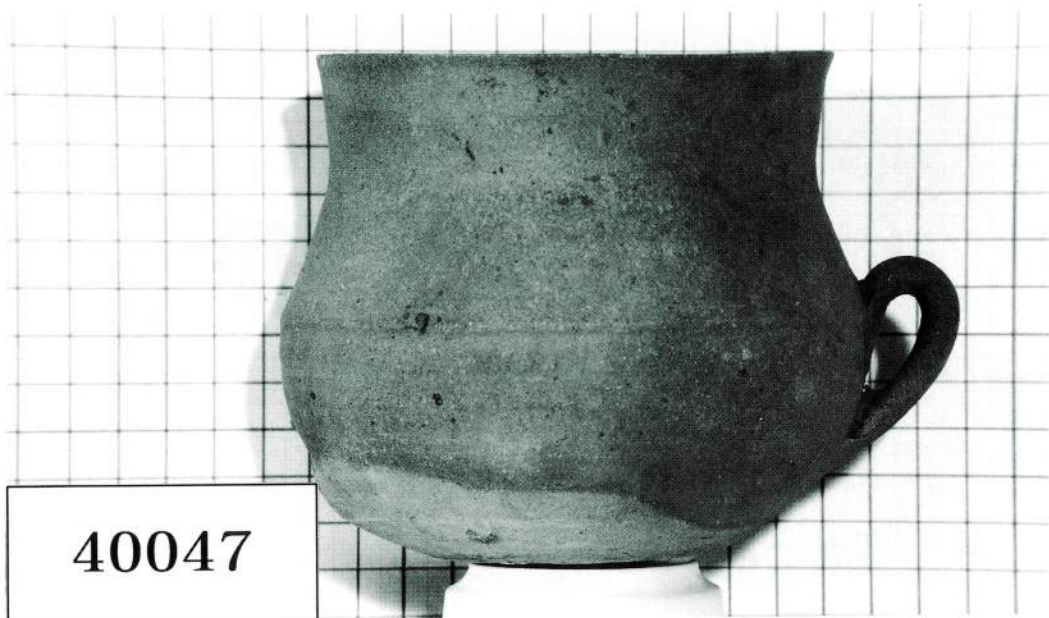


사진30. 귀손잡이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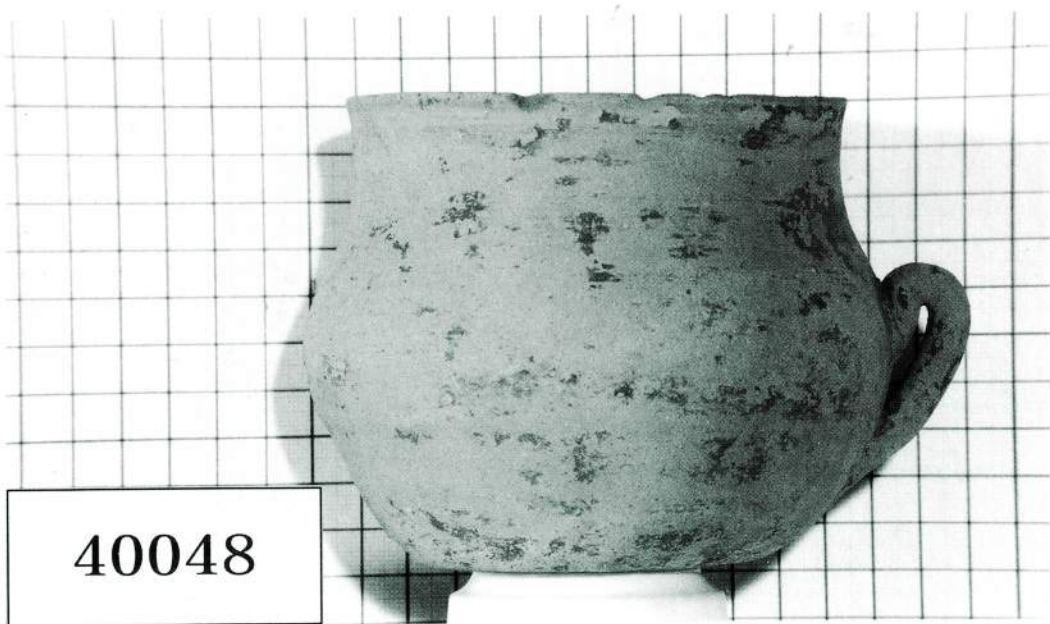


사진31. 귀손잡이잔

40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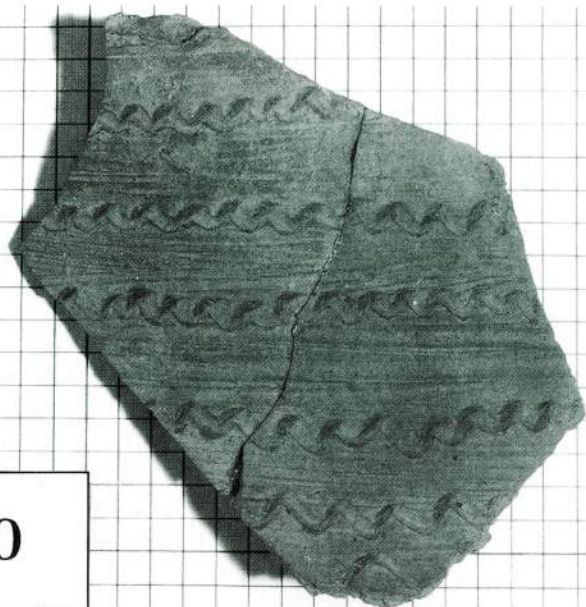


사진32. 질그릇 조각

40059



사진33. 질그릇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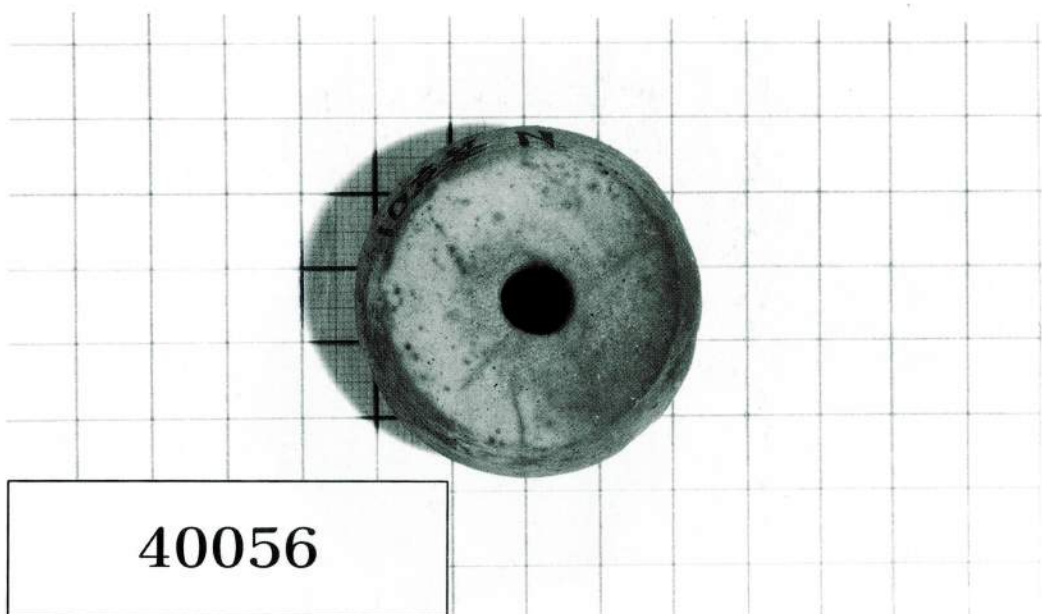


사진34. 가락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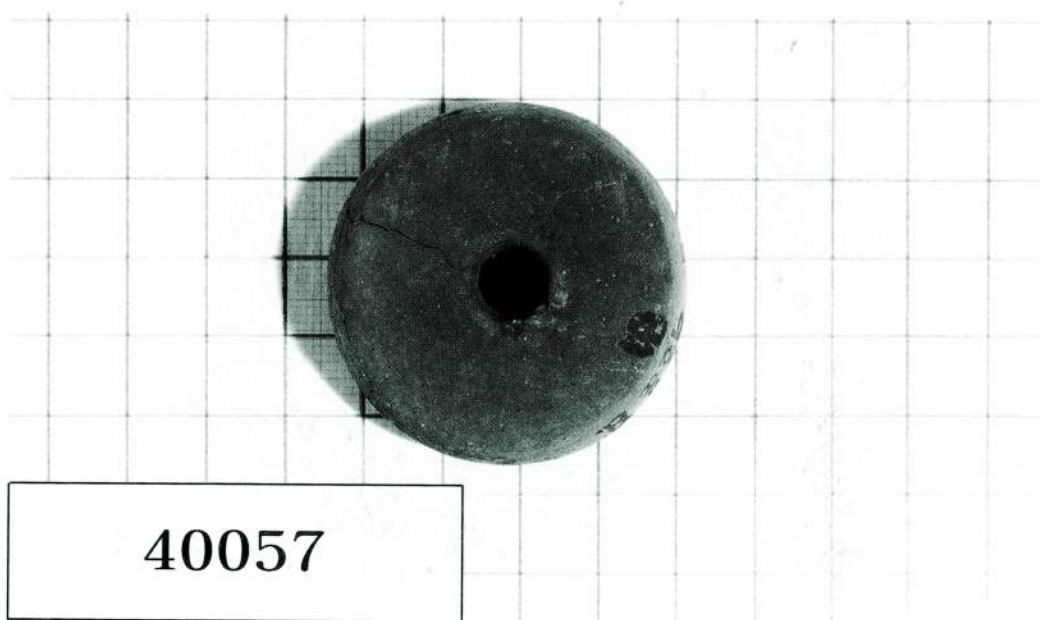


사진35. 가락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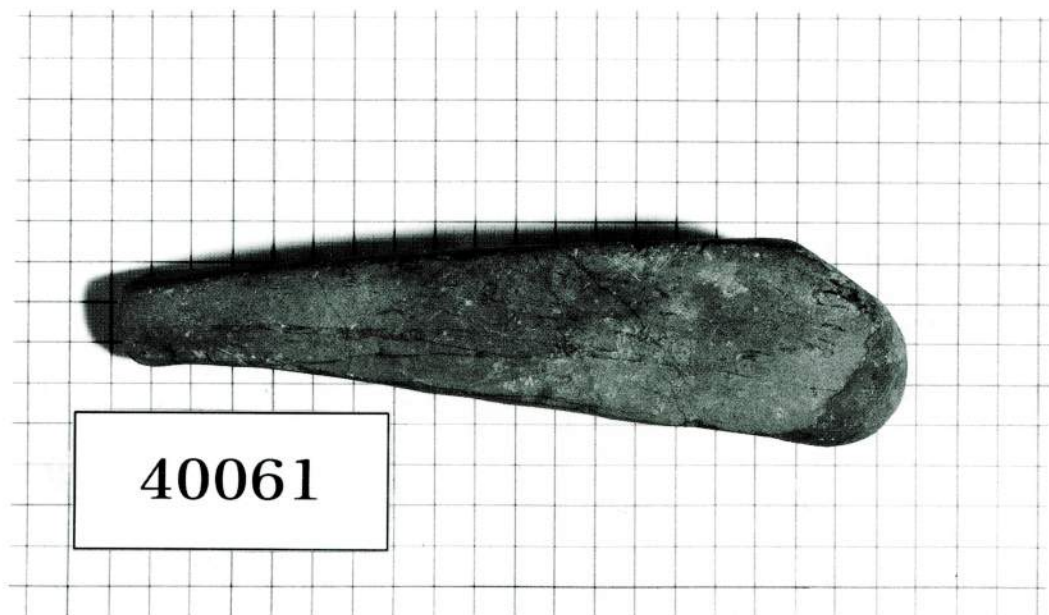


사진36. 숫돌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 박물관

고적 조사보고 제 28책

사천 송지리 옛 무덤떼

인쇄일 : 1999년 12월 26일

발행일 : 1999년 12월 31일

편 집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발 행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 709-2186, 709-2935

인 쇄 : 호 문 사

☎ 02)2267-3401

(비매품)